

“목숨을 걸어 지키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 진실이다”

## ‘따뜻한 가을 날씨’ 광주·전남 곳곳 아침 최저기온 역대 1위

지난 3일 낮 최고기온 영광 31도...역대 10월 중 가장 더워  
 “낮과 밤 기온차 10도 이상 벌어져...건강관리에 유의해야”

따뜻한 가을 날씨가 이어지면서 4일 광주·전남 곳곳의 아침 최저기온이 10월 중 가장 높게 나타났다.

광주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전 광주 지역 아침 최저기온은 23.1도를 기록해 10월 일일 최저기온 중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도 여수·장흥 23.4도, 목포 22.8도, 완도·신안 흑산도 22.3도, 강진 22.2도, 영광 21.3도 등을 기록해 역대 가장 높은 최저기온으로 집계됐다. 기상청은 따뜻한 남서풍 영향과 일사량이 크게 늘면서 전남 크게 오른 기온이 밤사이 떨어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전남 낮 최고기온은 담양 31.6도, 영광 31도, 장성 30.6도, 곡성·구례 30.5도, 함평·화순 30

도, 광주 29.9도, 강진 29.1도, 광양28.9도, 진도 27.4도 등을 기록했다. 특히 영광은 전남 최고기온이 지난 2016년 10월4일 30.7도를 경신, 기상 통계상 10월 중 하루 최고기온이 가장 높았다. 신안 흑산도(26.5도)는 역대 2번째, 강진·광양·진도도 역대 3위에 해당할 정도로 10월 낮 최고기온이 높았다. 순천과 보성도 전남 10월

중 낮 최고기온 기록 4위가 바뀌었다. 기상청은 이날 낮 기온이 23~30도로 전남보다는 다소 낮아지겠지만,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0도 안팎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다. 기상청 관계자는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으로 크게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환절기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이슬기자

## 전기요금에 가스요금 인상 불씨 여전...물가 목표 2.0% ‘빨간불’

도시가스 요금 기재부-산업부 이전 전기료 이어 인상시 물가 상승압력 ↑

4분기 전기요금이 8년 만에 오른 가운데,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마저 제기되며 물가 상승 압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4일 관가에 따르면 11월 도시가스 요금 인상 가능성을 놓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앞서 이억원 기재부 제1차관은 지난달 29일 제29차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이미 결정된 공공요금을 제외한 나머지는 연말까지 최대한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4분기 전기요금이 연료비 상승, 한국전력 적자 폭 확대 등을 감안해 8년 만에 인상이 결정되며 도시가스와 고속버스, 택시,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이 줄줄이 뜰씩이자 서둘러 제동을 걸고 나선 것이다.

그러나 하루 뒤인 같은 달 30일 산업부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원료비 인상이 계속되고 있고 누적 압박이 커져 적절한 시점에 (기재부와) 가스요금 인상에 대해서 다시 협의할 계획”이라며 “연내 (가져 인상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고 상반된 입장을 내놨다.

이 관계자는 “전체 물가 차원에서 관리가 필요한 측면도 있지만 가스·전기요금은 어차피 (소비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며 인상 요인 발생 시 제때 적용해 공공요금 가격 기능이 회복돼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양 부처 간 이견으로 연내 가스요금 인상 가능성이 다시 피어오른 셈이다.

기재부와 산업부는 앞서 4분기 전기요금 결정을 놓고도 이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는 국민 부담 등을 고려해 물가 안정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고 본 반면, 산업부는 이미 올해 2·3분기에도 연료비 연동제 시행을 유보한 만큼 더 이상 인위적으로 요금 인상을 억누르는 것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결국 4분기 전기료가 전분기 대비 Kwh당 3원 인상되며 지난해 수준으로 원상복구에 따라 각종 공산품 단가와 서비스 산업 전반에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일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여기에 가스요금까지 오르면 물가 상승세는 더욱 가팔라질 수 있다.

최근 물가 흐름을 보면 인플레이션 가능성이 더욱 커지는 것은 물론 서민 경제 부담도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8월 소비자물가는 1년 전보다 2.6% 증가하며 5개월 연속 2%대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 특히 원유 가격 급등으로 서울우유(5.4%), 동원F&B(6%), 매일유업(4~5%), 남양유업(4.9%) 등이 우윳값을 잇따라 올리며 우유를 원료로 하는 음료·빵 등 관련 상품도 줄줄이 인상될 전망이다.

여기에 약 11조원 규모의 국민지원금, 이달 시작된 카드 소비분에 대해 캐시백으로 돌려주는 상생소비지원금이 맞물려 소비 촉진의 기회도 되지만 물가 상승세를 부추길 것으로 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물가 오름세가 확대될 경우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민생경제에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취재본부김윤호기자



**핑크빛 '가을'** 개천절 대체공휴일 연휴 마지막 날인 4일 경북 칠곡군 가산수피아 수목원을 찾은 시민들이 핑크몰리 분홍빛 물결 속에서 가을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 ‘코로나19 발생률 낮은 10개 자치구’ 전남 지자체 7곳 차지

‘강진·구례·영광·보성·신안·무안·해남’ 서울 중구 10만명 당 2729.2명 가장 높아

인구 10만명 당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낮은 10개 지역에 전남 지자체 7곳이 포함됐다.

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 송파구병)이 질병관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코로나19 전국 229개 시·군·구별 누적발생률(9월30일 기준) 자료에 따르면 인구 10만명 당 발생률이 가장 적은 자치

구 10곳 중 7곳이 전남의 지자체가 차지했다. 전남 강진군은 10만명 당 40.5명으로 전북 전주시 덕진구의 18.9명에 이어 2위이다. 다음은 경남 창원시·마산 회원구로 47.6명이다. 전남 구례군이 50.5명이며, 경북 영양군 59.9명, 영광군 60.3명, 보성군 64.2명, 신안군 69.3명, 무안군 87.1명, 해남군 93명 순이다.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높은 자치구는 서울 중구가 10만명 당 2729.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대구 남구 1693.4명, 서울 중로구 1523.6

명, 서울 강남구 1475.6명, 서울 서초구 1265.7명 등이다. 인구 10만명 당 누적 사망률은 전북 완주군이 111.5명으로 가장 높았다. 남인순 의원은 “코로나19 발생률이 가장 많은 지역 10곳 중 8곳이 서울의 자치구였다”며 “인구 집중이 감염병 등에는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만큼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동취재본부

워킹레일

요양원 061)395-2580  
 주·야간보호 061)394-0123

# 신세계요양원

## 주·야간보호센터

장성읍 방울샘길 12 (영천리 1493-5)